

檢, 전두환 기소 광주 법정 세운다

회고록에서 헬기사격 부정
5·18 희생자·유가족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광주지검, 역사왜곡 단죄
광주일보 보도 결정적 역할



미국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확보해 번
역한 결과, ‘군중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
았고, 실제로 발포

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는 내용
이 기재돼 있었다”면서 “이는 한 언론
(광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
다”고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 국무부에 1일 보고 형태로 보고한 내
용에 헬기 발포 내용이 담겨있는데도,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다
취할해 5·18을 주도한 사람(전두환)이
이를(헬기 사격)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당시 출격한 헬기조종사 40여명
중 대부분이 진술을 거부하고, 2명만이
진술했지만 이들마저도 헬기사격 여부
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에서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도 주력했다. 검찰
은 (전두환이)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
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다수 목격자의 진술, 국과수 옛 광주일
보 사육인 전일빌딩 감청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
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
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5·18진
상규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사법적
정의실현을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
다”면서 “향후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
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이
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민이 주장해왔
던 군의 헬기 사격을 검찰에서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전두환은 더 이상
책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영준 광주지검 공보담당관 차장검
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주한

남북 여자탁구 깜짝 단일팀...“내친김에 우승 가자”



2018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인 서효원(왼쪽)과 북한 김남해가 2일(현지시간) 스웨덴 할름스타드의 툴레산드 호텔에서 남북 깜짝 단일팀 시범경기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남북 대표팀은 단체전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경기 없이 4강에 진출했다.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에 꾸려진 단일팀은 4일 결승 진출을 노린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전남 날씨

4(금)	5(토)	6(일)	7(월)
9 / 22	12 / 26	16 / 20	16 / 22

어린이날 대체휴일 7일자 신문 쉽니다

메드라인 3200억 투자유치 무산 위기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
식이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불을 밝힌 점
등탑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을
재현한 것으로 높이 18m 규모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업 불황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불황의 타격을 받은 목포와 영암
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면서
목포와 영암이 제외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로 추
가 지정된 것이다.

〈광주일보 4월10일자 1면〉
이에 따라 목포와 영암 지역 노동자와
주민은 대부분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 대상이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
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전라남도 영
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 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는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 고
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
다”고 부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4일에는 전북 군
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
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
했다. 노동부는 목포와 영암 지역에 대해
군산을 포함한 6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
로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현 예산을 활용
하되 필요할 경우 기금융융계획 변경 등으
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민선6기 전략사업 성과 내지 못해 한국 파트너, 본사와의 신뢰관계 무너져

민선 6기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글
로벌 기업 ‘메드라인’의 3000억대 투자 계
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메드라인의
한국 파트너에 대한 실재를 파악한다며 미
국 본사에 투자 여부를 직접 타진, 상호 신
뢰 관계가 무너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투자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정보 유출로 보고 수사 의뢰 방침을
공표하면서 투자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등
시의 투자 유치 행정 전반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병규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3일 기자간
담회를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시카고를 방문해 메드라인 본사의 광
주투자 의향을 확인한 결과 부사장인 론
바스(Ron Barth)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 계획이 당초 없었던 것인지,
수사 의뢰 방침 공표 등 논란 속에 투자 계
획을 철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설명하지 못했다. 또 메드라인 본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찾아가 본사 경영진을 만
나지 못하고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
는 등 시의 행보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메드라인 한국 파트너는 시에 최근 투자
유치 행정의 문제점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투자가 최종 무산되면 소송에 나
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월 연 매출 10조원 규모의
글로벌기업인 메드라인이 3200억원 규모
의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청년 일자리 등
3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

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3개월만에 보
도자료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박 부시장은 “본사 차원에서 투자할 것
으로 보고 추진했으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파트너
등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투자 계획을 제시
하면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답
변을 내놨다.

실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파트너가 본
사와 연락이 되고 있으며, 시가 보내는 메
일이나 대면 요구 등의 사실을 모두 파악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체가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아
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초 메드라인의 한국
파트너인 메드라인코리아 대표인 ‘제니퍼
정’의 투자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2월 14일
한국도지주태공사(LH) 광주전남본부와
3자 투자자의향서(LOI)를 작성했다. 지난 2
월 초에는 ‘메드라인 비전 선포식’을 통해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획과 미국 본사 방문 등 세부사항을 협
의했다. 이 과정에서 메드라인 전체 자본
의 7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본
사 명예회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투자와
관련된 서신, 크리스마스 카드 등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박 부시장은 “통상적인 투자 유
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 실체를 의
심하는 여론이 있어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명예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났
으며, 그 아들이 현재 메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1000
전년을 품다, 새천년을 낳다
전라도천년
2018
전라도
방문의용해
2018 Visit Jeollado, Korea